지율스님과 일행들이 지난 10일 아름다운 모래강인 내성천을 둘러보고 있다.

‘사랑의 교회’ 감사 서명운동 전개

종교자유연구원
공익성 침해와 ‘위헌’
시민단체와 연대해
신축 특혜의혹도 규명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신축 허가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지난 11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공익성 침해 및 위헌 감사청구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종자연은 감사청구 주요사안으로 대한민국 건축사상 처음으로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한 점과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지하고 교회부지로 통하도록 설계한 점, 도시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 서초구 소유 소로를 사랑의 교회에 매각한 점, 기부채납으로 교회 건물 내부에 공공시설인 구립 유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랑의 교회 신축 특혜의혹 사건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사안”이라며 “국민 스스로가 문제 삼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종규 변호사(종자연 운영위원)는 “보이는 현상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시설물 지하공간 점용허가기간이 2019년 12월31일까지여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예배당이 건립되면 사실상 영구 점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10만명 이상의 서명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20일까지 서명을 실시하며, 9월30일 전으로 서명을 취합해 감사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심포지엄도 9월7일 개최한다.

감사청구 연명 단체로는 문화연대, 에코피스아시아, 서울환경운동연합, 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랑의교회건축시민감시단,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가톨릭환경연대 등 총 25개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이런 모래변은 어디에도 없다”

내셔널트러스트, 내성천 답사

수몰 위기 상류부터
지율스님 안내로 둘러봐
‘땅 한평 사기운동’ 도 시작

“다섯번째 낙동 순례를 시작한다. 끊임없이 나를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 외에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강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만일 내가 본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보여주고 싶다.”

지난 10일 지율스님과 영주댐 건설로 훼손위기에 처한 내성천 현장 답사에 나섰다. 스님은 최근 내성천 보호를 위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손을 잡고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시작했다.

낙동강 제1지류인 내성천은 봉화와 영주, 예천까지 이르는 강이다. 스님의 안내로 수몰위기에 처한 내성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둘러보고 돌아왔다.

듣던 대로 내성천은 아름다운 모래강이었다. 영주시 이산면 두월교에서 순례를 시작한 답사단은 지율스님의 안내로 강에 발부터 담갔다. 보기와는 달리 수심이 깊지 않고 갑자기 푹 꺼지는 일도 없어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 구간 수심은 1m 남짓으로 S자를 그리며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넓은 모래변이 있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여기를 찾은 한 영국인은 왜 아직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았냐고 물어왔다. 멸종위기 흰수마자를 비롯해 원앙, 수달까지 강에서 봤다. 그 역할을 모래가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모래알갱이에 우주가 있다고 말씀했다. 이날 본 내성천에는 동물과 물고기, 수생식물, 물벌레가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성천 모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스님은 모래가 물과 함께 흐르면서 낙동강 전체를 돌보는 자정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하천 환경의 ‘콩팥’ 이라는 것. 하지만 영주댐이 완성되면 상류에서 물이 저장돼 하류의 물이 줄어들고 모래 또한 공급이 줄어들어 강의 정화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동강 모래 50% 이상을 공급하는 내성천만 살아있다면 맑은 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강행된 것도 국민들이 아직까지 우리 강의 소중함을 몰라 벌어지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도 모래톱이 강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모래톱에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여기에 어패류가 서식·산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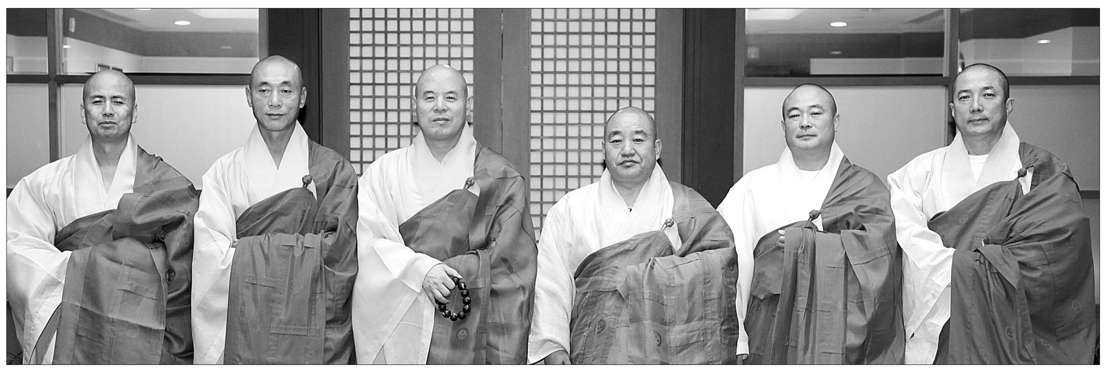
물이 부족한 시기에도 모래는 수심 6~7m 정도의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이들을 먹고 사는 곤충류와 조류종도 그만큼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주댐 건설은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4대강 사업이 가속화 되면서 2013년 완공으로 앞당겨졌다. 터전을 잃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400년 된 금강마을도 물에 잠기고, 괴헌고택 등 13점의 지정문화재도 모두 통째로 뜯어 옮겨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승인도 없이 공사부터 시작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www.nationaltrust.or.kr)는 올해 안으로 1만 명을, 2015년까지 10만 명을 모집해 10만 평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제 이 모든 파괴와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침묵의 방조자인 동시대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강은 우리가 가치를 깨닫기 이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율스님이 내성천 살리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영주 · 예천= 홍다영 기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스님들이 기금을 전달한 후 사진촬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왼쪽부터 고운사 호성스님, 수덕사 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금산사 원행스님, 신흥사 우송스님, 은해사 돈관스님.

기금전달

논산법당 건립기금…승가교육…자비 나눔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비와 승가교육 발전기금, 자비나눔기금 등이 아름다운동행과 승가교육진흥위원회로 답지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은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승가교육진흥위원장)에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비 1000만원과 승가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와함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이 승가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이 자비나눔기금 530만1000원, 인천 부루나포교원 주지 선일스님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비 1000만원을 각각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각 교구본사마다 사중 형편상 군법당 건립불사 등 종단차원의 불사에 크게 동참하기는 어렵지만 동참하겠다는 마음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십시일반 동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며 “사중의 살림이 어려울 텐데도 군포교와 승가교육 등 각종 불사에 동참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단의 취임인사도 겸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에는 지난 7월20일 제17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통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원행스님(금산사 주지)을 비롯해 부회장 지운스님(수덕사 주지) · 호성스님(고운사 주지), 총무 돈관스님(은해사 주지), 재무 우송스님(신흥사 주지) 등이 참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의 힘은 교구본사에서 나오는 만큼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 사진 신재호 기자

‘相生’ 으로 사태해결 되길…

부산종교지도자·대불청
‘한진중공업’ 농성장 방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단체에서 ‘상생과 대화’ 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역 종교계 성직자들은 지난 9일 한진중공업을 방문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했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을 비롯해 태종사 회주 도성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 상임대표 정각스님, 정영문 원로목사, 김길철 천도교 부산교구장 등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이 농성중인 크레인을 찾아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한진중공업 사태가 오래 지속되고, 고공크레인 항쟁과 희망버스라는 새로운 노동권 수호방법 등이 우리 사회에 큰 염려가 되고 있다”며 “사용자측은 나눔의 미학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마음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한진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박승종 상무와 만나 의견을 경청했다.

다음날인 10일에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하재훈) 주관으로 ‘한진중공업 문제해결과 김진숙 무사귀환을 위한 생명평화 기원법회’ 가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 맞은편 인도에서 열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대구 무심사 주지 법우스님과 200여 청년회원이 참석했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은 이날 생명평화기원법회에서 인사말에서 “모든 생명은 평화를 누리면서 안정된 사회적 기반위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며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절규 소리가 안타깝다.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돼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법스님은 법어를 통해 “존귀한 생명을 걸고 15m 높이의 크레인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다”며 불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용기있고 지혜롭게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맞은편 크레인에서 김진숙 씨가 손을 흔들며 법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부산지역 종교계 성직자들은 지난 9일 한진중공업을 방문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했다.

社告

탈북주민에게 이불을 지원합시다

불교신문과 안성 칠장사가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매월 250여명의 탈북주민이 정착교육을 받은 하나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지원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시다.

- 주 최: 안성 칠장사 · 불교신문사
- 주 관: 안성 칠장사
- 후원계좌:
  농 협: 351-0303-0852-33 (이불 1채 2만4000원)
- 예 금 주: 칠장사
- 연 락 처: (031)673-0776

불교신문사

유럽 알프바흐 포럼장학생 선발

건국대 권현우씨

한 불자학생이 유럽의 저명한 포럼 장학생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현우(법명 일진)씨. 권 씨는 우수한 학업성적과 에세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 오는 18일부터 9월3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진행하는 ‘알프바흐 포럼’ 에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권 씨를 포함해 3명이 참가한다.

알프바흐 포럼(http://www.alpbach.org)은 유럽연합이 형성되기 전인 1945년부터 개최됐다. 현재까지 매년 8월 말에서 9월 중 열리고 있는 국제적인 포럼이다. 매년 전 세계 학자 등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포럼은 유럽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명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주제는 일반 정치 뿐 아니라 경제, 기술 ·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세미나가 진행된다. 또 포럼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썸머스쿨을 열어 유럽연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정의(Global Justice)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한다.

장래 외교관이 꿈인 권 씨는 “유럽연합은 현대사회 지역공동체 형성의 롤 모델이어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불자청년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져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교구본사 사무장 대만연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영담스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대만 불광산사 등지에서 ‘교구본사 사무장(종무실장) 해외연수’ 를 실시한다. 지난 2008년 일본 연수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교구본사 사무장 해외연수는 해외 선진 사찰의 사회활동과 포교, 재정, 불사 등을 체험 및 견학함으로써 사찰 운영 실무와 소양을 제고하고 지방종무기관과 종앙종무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대만 카오슝 불광산사에서의 1박2일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불광산사 난핑별원, 불광산사 타이페이도량, 타오웬 금광명사, 화련 자제공덕회, 타이베이 자제공덕회 환경교육센터 등을 잇따라 참배하고 고궁박물관을 관람하게 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낙단보 마애불
경북문화재 지정

지난해 10월 낙동강 4대강 공사 현장인 낙단보 인근에서 발견된 마애보살좌상이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이주섭)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낙단보 마애불)’ 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마애보살좌상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마애보살좌상 중심 반경으로 20m 구역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은 상호가 원만하고 자비로운 보살의 이미지가 잘 표현된 고려 전기의 마애상으로,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시대의 수운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보살상으로 평가됐다. 엄태규 기자